

자기를 자기가 믿어야 공부되는 도리

19면에서 계속

들이대지 말고 남의 마음을 살펴주는 그런 마음이라야만 되죠.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생각을 하나 세상에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불쌍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디를 들여다봐도 다 불쌍해요. 측은하고 불쌍하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고 돈을 가지고 산다 하는 집을 들여다봐도 불쌍해요. 그 속에는 가난한 사람의 아픔보다도 더 아픈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사람 쳐놓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불쌍하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한 철이라는 얘기도. 발자국을 잘 떼어놓는다 해도 한철, 못 떼어놓는다 해도 한철이예요. 그래서 남하고 말다툼 없이 속이 아프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연고가 있어서 그러겠지.' 하고 지혜롭게 마음을 써 주는 거. 지혜롭게 내주는 마음.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풀잎 하나도 나를 옹호하지 않는 풀잎이 없을 거예요. 아아.

자기 이끌어가는 건 근본

모두가 친구고 모두가 벗이죠. 다른 생명들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아플같이 생각하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부모같이 생각하고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내 형제같이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수 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굴러왔으니까요. 그렇게 왔으니까요. 출창 그런 말을 하지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한철 이 몸 속에 들은 모습들처럼 살 때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었어요. 아픈 것은 똑 같아요. 사람이 아파하는 거나 짐승이 아파하는 거나 미생물이 아파하는 거나 똑 같아요. 그래서 구르고 구르면서 진화되고 형성되는 그 자체가 바로 근본이예요. 그 근본이 바로 지금 리더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데도 불과하고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한다고 하니깐. 만약에 자식이 부모는 물론 체 하고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날마다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칠 날 때까지. 그냥 같습다. 이 마음 도리도. 얼마나 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이 어지는 반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악하게 인연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에 미생물에서부터 살아오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부모 아니었던 분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내가 나와보니까 모두가 이 세상 일체 만물만생이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만물이 다 스승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 때문에 망했다. 또 너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맛 좀 보이겠다. 꼭 갚겠다하는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모두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죠.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 이렇게 치는데 지옥은 지금 현재에 보십시오. 갇혀있는 사람들 보세요. 감옥소에 갇혀 있죠. 그리고 아귀는 땅속에 사는데 먹기는 먹어야 할 텐데 입이 작으니 하루 종일 먹어도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아귀·축생 하는 게 아니죠.

영령들도 그렇게 갇혀서 지옥고를 못 면하죠. 국내 밥내도 못 먹는다는 말이

육안으로보면 보통인간

심안·법안은 공부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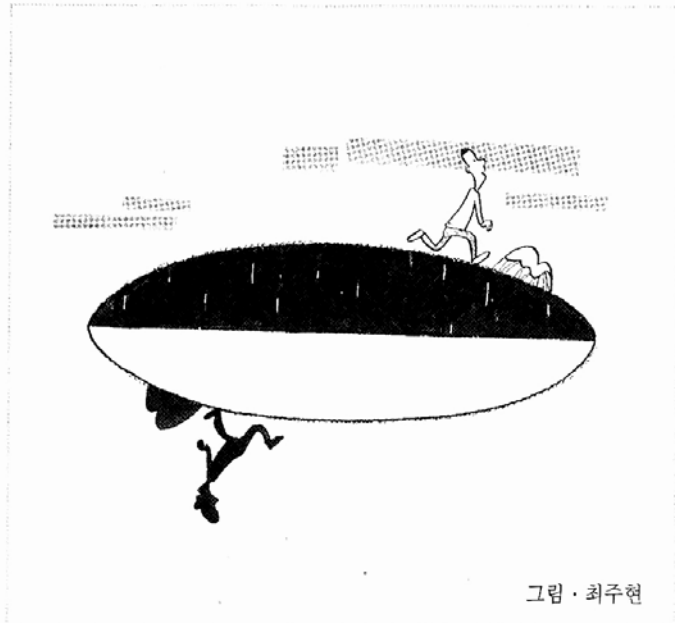
불안으로 보면 부처님

혜안은 다보탑 오른 분

있죠. 축생들도 보세요. 인간이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람하고 축생하고 같이 살면서 윤회하면서 돌아가지요.

그리고 아수라도 사기 강도 강패들. 모듬으로 단체를 보세요. 그게 아수라 장이죠. 우리는 보통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는 사람도 살고 있죠. 마음공부를 하셔서 하들 사람으로서 사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집착을 다 버리고, 몸에 대한 집착도 안하고 모든 것을 함이 없이 하니깐 벗어났어요. 그러나 과거로부터 몸 속에 있는 의식들이 자꾸 자기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작동을 하게 만드는 습. 그 습을 녹이지 못하면 다시 미(迷)해서 떨어진다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만한 것도 다 거기에다가 맡기고 살아가. 그래야 다 녹아버린다. 하나에다 모든 것을 맡기면.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보통 인간이고, 심안으로 보는 사람은 조금 공부한 분이고, 법안으로 보는 분은 조금 더한 분이고, 또 불안으로 보는 분은 부처님 단계까지 가는 분이고 혜안으로 본 분은 다보탑에 같이 하신 분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남이 너는 공부를 했다 안 했



그림·최주현

사소한 것도 다 근본에 맡기고 살면 과거로부터 쌓아온 습 녹습니다

다 하더라도 그걸 부질없이 듣고 탓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무슨 크고 작고, 때로는 아주 작게 들어가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크게 들어가야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두서가 없는 것이 진리이고 이 공부인데 어떻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부처님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라고 부른 겁니다. 부처님은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거지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그건 부처가 아니죠.

세세생생 얻는 마음공부

신도님들을 보면 어느 신도는 간혹하게 애길 하고 어느 신도는 그냥 한편씩 구석에서 말없이 있다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천차만별이죠. 하고 가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오히려 말하는 분보다 안하는 분이 말을 다 하고 가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말합니다. 다 듣고 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만 제일인

줄 알고 안 보이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는 생각을 안 해요. 안 보이는 데서 한 건 누가 했는지 모르죠. 내 마음을 넉넉히, 보이지 않는 데간 혼자라도 넉넉히 써야 바깥으로 넉넉해진다 말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넉넉히 쓰지 않고 그냥 귀어짜고 있다가 남이 보는 데서만 한다면 그거는 이중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안에서요. 나라는 존재를 버리세요. 이래도 한철 저래도 한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그냥 버리고 사세요. 버린다면 강도가 든다 하더라도 '그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강도도 사람이니까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내가 마음으로 그 강도와 둘이 아니게 될 때 비로소 강도도 참회를 하기 이전에 벌써 몸부터 조아리게 되는 겁니다. 달려들기 이전에, 그러면 선처를 배웁니다. '나 이거밖에 없는데 가지고 가. 왜 이렇게 밤중에 고생하고 왔어. 낮에 좀 와서 의논하지.' 난 이런 얘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 아닌 마음이 그쪽 마음으로 동결이 되면 그런 것 못해요. 왜냐하면 벌써 자기마음에서 거부하고 나가거든요.

영계성으로 오거나 암 같은 종류도 어디에서 생기는가하고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하니깐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인과성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유전이 되는 거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과거 인연으로 인해서 악한 인연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 몸에 주둔해 있다면 몸에서 발작을 일으키죠. 모두 잡아먹게 되니까 굳어지고 양이 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몸속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주 거죽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거를 떼어내니까 병원의 의사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떼어내지 않는다면 의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하니깐 공부를 못하지 이런 생각도 마세요. 이거는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 안했다를 떠나서 마음이 그렇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남이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닭도 얼마나 영악한지 신발을 알아요. 이 사람의 신발인지 저 사람의 신발인지, 나발 것 다 봤어요. 하여튼. (대중 웃음) 닭을 쫓고 씨리 가지르다가 때리는 사람의 신발에는 오줌을 싸놔요. (대중 웃음) 그런데 모이도 주고 예뻐하는 사람의 신발에 올라가 앉아 있어. 추운데도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그 주인이 나오면 자기집 만들어 놓은 곳으로 들어가요.

이거 한마디만 더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부처님이 계신데는 등을 켜 놓는데 등에 불을 켜서 해놓는데, 옛날에는 기름으로 켜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조그만 접시에서 기름 조금 담고 심지 만들어서 켜놓는 등하고 큰 등에다가 기름을 많이 넣고 불을 켜 놓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꺼지지않는 마음의 등불

신도: 같습니다.
스님: 고정되지 않다고 늘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적고 큼이 없이 똑 같긴 똑같은데 똑같다면 무슨 깨달음이 똑같다고 하는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신도: 예.
스님: 누가 그랬어요.
신도: 제가 그랬습니다.
스님: 분명 하나는 적고 하나는 큼니다.

신도: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습다.
스님: 그런데 물질로 볼 때는 적고 크고가 없죠. 그러나 속에 그걸 깨닫고, 즉 말하자면 켜놓는 것이 그냥 불이 아니죠. 등이 아니죠. 한쪽은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는 불이고 한쪽은 비바람이 불면 금방 꺼지는 불이거든요. 같습니까?

신도: 마음이 같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 안 한다면 반대로 나가죠. 마음의 불, 불씨는 천둥 번개가 쳐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아 여러분 중에 마음의 불이 켜져서 지금 활활 밝히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여기도 다 미생물이 있고, 날아다니는 게 우리 눈에는 안보여도 다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내 인연으로 인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없다면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불 하나 켜 놓는 것이 자기의 앞뒤가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나 미래의 자식들도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촛불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켜야 되겠죠. 그 마음의 등불인 자기 주인공을 잊지 마시고요. 세세생생 내려온 주인공이고 지금도 주인공이고 미래에도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 죽는 법 봤어요! 허허허.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9년 2월 7일 법원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폐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폐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30차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깨어있는 지도자 슬기로운 어린이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부처님 나라를 위해 협찬 정진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순수하게 어린이포교에만 앞장서온 본회가 제30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30번째라는 큰 의미 속에서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깨어있는 지도자 슬기로운 어린이'라는 슬로건 아래 올바른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과 신심고취를 위하여 친목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어린이포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모여 새해 새날의 아침을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4년 11월 좋은 날

- 총재: 정관 ■ 부총재: 혜승 철오
- 회장: 덕진 ■ 상임부회장: 정여
- 부회장: 운성 원혜 해관 영조 심산 성형 인성
- 감사: 지광 박창식

주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주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

연 계 불기2544년 12월 30일(토) 오후 5시
~ 익년 1월 1일(월) 오전 11시(2박3일)
장 소 속리산 유스타운(법주사)

- ☞ 참가대상 : 어린이 지도법사 및 교사, 어린이포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 동참금 : 1인 5만 5천원 (미리접수 5만원) 군중병/도서벽지 지도자 3만원 (2박 6식, 연수회자료집, 2만원상당 도서, 기념품 지급)
- ☞ 신청방법 :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전화 / 당일 접수도 가능
- ☞ 신청기간 :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까지
- ☞ 보내실곳 : 우치국 601310-0037877 예금주 - 대불어
- ☞ 접수담당 : 장수정
-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장갑, 세면도구, 필기구
- ☞ 접수문의 : 본회 사무국

☎ 051)808-4569, 4570 FAX 051)808-4571
홈페이지 : www.sesag.or.kr
e-mail : webmaster@sesag.or.kr

☞ 각 지역 문의처 (차량 및 교통편 문의)

- 서울·경기 : 02-433-1506, 7 / 유지선 사무국장(선재마을)
- 부 산 : 051-852-5414 / 부산지구 사무국
- 대구·경북 : 016-505-3143 / 김형중 사무국장
- 광 주 : 011-719-5550 / 정수보 사무국장
- 대전·충남 : 016-446-5955 / 김선형 사무국장
- 경 남 : 055-242-0108 / 천명숙 사무국장
- 제 주 : 016-691-4728 / 김봉현 사무국장

연 수 내 용	강 사
초등교육의 특성과 아동지도의 방향	허승희(부산교육과 교육학과 교수)
우리지구 최고야!	
우리 법회 팽! 팽! 팽!	시례발표
어린이포교를 위한 발원법회	수계식 삼보일배
N세대를 위한 친불가와 울동	풍경소리
팔상성도의 교육적 재조명	빅보리성(전 부산시 장학사)
천진불들과 함께 꾸며요!	천영숙(경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선생님 이게 뭐죠?	김영란(최소년 성 문화센터 관장)
어린이법회 과학 탐방교실	조오근(부산 총림고 물리교사)
GO.27C.COM(새해를 맞이하며)	해원스님(한국불교선재주사원장)
법회에 활용할 수 있는 선 채조	
불교 미술의 세계	박찬수(목아 불교박물관 관장)